

미래전문가양성과정 국외연수 귀국보고서 [갈등관리협상 과정]



목 차

1. 연수개요	1
2. 방문기관별 주요결과	4
가. 아시아인권위원회(Asia Human Rights Commission)	4
나. 평등기회위원회(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6
다. 페트로나스 쌍둥이 빌딩(PETRONAS Twin Building)	9
라. 푸트라자야 신행정도시 컨벤션센터(PICC)	11
마. 말레이시아 국가연수원(INTAN)	15
3. 종합 시사점	16
4. 연수자 명단	18

□ 목 적

-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관리 조정 통합 등을 학습하는 가운데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 다민족의 지역 공동체의 형성으로 생겨나는 민원문제 및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할 필요 발생
- 다민족 다문화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선형적 경험을 가진 동남아 국가의 정책 사례를 연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갈등 및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조정 협상 통합한 사례를 탐색하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반영할 수 있는 다문화 정책을 수립하는 지식과 기술을 벤치마킹 하고자 함

□ 연수기간 : 2017. 8. 28 ~ 2017. 9. 9 (6일간)

□ 연수국가 : 홍콩, 말레이시아

- 기관 : 홍콩 아시아인권위원회(Asia Human Rights Commission), 홍콩 평등기회위원회(Equal Opportunity Commission),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국제컨벤션 센타(PICC), 쿠알라룸푸르 페트라나스 빌딩(PETRONAS Twin Building), 말레이시아 국가행정연수원(INTAN)
- 현장 : 옹핑365빌리지, 말라카 문화유산등재 도시, 겐팅아일랜드, 사이버자야

□ 연 수 자 : 15명(도 4명, 시·군 11명)

- 미래전문가양성과정 갈등관리협상분야 교육생 14명, 인솔자 1명

□ 연수내용

○ 연수 일정 및 방문기관

- 공식방문기관

방문일자	공식방문기관(연수내용)
8. 29 (화)	아시아인권위원회(AHRC) : 아시아의 각 나라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와 이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정책 수립 및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사례연구
8. 29 (화)	홍콩평등기회위원회(EOC) : 성차별, 장애인차별, 신분차별, 인종차별에 대한 갈등관리 및 협상 사례 연구 및 정책 연구
8. 31 (목)	페트로나스 쌍둥이 빌딩 : 쿠알라룸푸르의 랜드마크인 쌍둥이 빌딩을 건축하면서 말레이시아와 일본과 한국 건설사간의 갈등 및 협상과정 벤치마킹
8. 31 (목)	푸트라자야 국제컨벤션센터 : 혁신 도시를 건설하면서 발생한 국가정부와 원주민과의 갈등상황 등을 조정 통합한 사례 연구
9. 1 (금)	말라카 문화유산 등재도시 : 동남아시아의 공무원들의 갈등관리 및 조정통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탐색하고 현장 적용사례를 벤치마킹
9. 2.(토)	인탄국가연수원 : 말레이시아의 실리곤 벨리를 구축하면서 다민족 취업 정책 및 다문화 조직의 운영 정책관련 사례 연구

○ 연수 세부일정

일 시	장 소	교통편	시 간	일 정	식 사
제1일 08/28 (월)	광 주 인 천	전용버스 CX 415	01:00	공무원교육원 집결 후 인천공항 이동	조:휴게식 중:딤 썸 석:한 식
	홍 콩	전용버스	11:40 15:25 16:30	인천 출발 / 홍콩 향발(홍콩 태풍영향으로 항공편 연발착) 홍콩 공항 도착 〈홍콩 문화탐방〉 ♣픽트램을 타고 빅토리아산 백만불 야경 감상 호텔 투숙 및 휴식	
제2일 08/29 (화)	홍 콩	전용차량	10:00 12:00 13:00 14:30 15:30	호텔 조식 후 ♣공식 일정 - AHRC(아시아인권위원회) 방문 아시아 국가의 인권침해 사례 및 조정 해결사례 연구 현지식 오찬 후 ♣공식일정 - EOC(평등기회위원회) 방문 성, 인종, 신분, 장애인 차별 방지 정책 사례연구 〈홍콩 문화탐방〉 ♣옹핑 365 빌리지 관람(케이블카)	조:호텔식 중:한 식 석:삼겹살
				호텔: 엘니나 호텔	

제3일 08/30 (수)	홍콩 쿠알라룸푸르	전용차량 CX5725 (코드쉐어)	오전 12:50 16:40	호텔 조식 후 스스타의 거리, 낭만의 거리 경유 공항으로 이동 홍콩 출발 / 쿠알라룸푸르 향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도착 후 석식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쿠알라룸푸르 풀만 호텔	조:호텔식 중:기내식 석:한식
제4일 08/31 (목)	쿠알라룸푸르	전용차량	10:00 13:00 14:00 15:30 18:00	호텔 조식후 <쿠알라 문화탐방> 스페트로나스 쌍둥이 빌딩 공식 일정 - 푸트라자야 도시건설 홍보관 방문 (혁신도시 건설에서의 갈등 조정 사례연구) 공식 일정 - 사이버자야 운영본부(말레이시아의 실리콘 벨리를 지향하는 곳, 다민족 취업 및 다문화 정책 관련 사례 연구)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 쿠알라룸푸르 풀만 호텔	조:호텔식 중:중국식 석:한식
제5일 09/01 (금)	겐팅 말라카	전용차량	11:30 17:00 20:00	겐팅 아일랜드 이동(약 3시간 소요) 해발 1,800미터에 조성된 구름위의 공원 겐팅하일랜드 전학 <말라카 문화탐방> 스포츠루칼 건축 양식 세인트폴교회 네덜란드식 목공예.석공예 건축양식인 스타이더스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말라카 파인 호텔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식
제6일 09/02 (토)	쿠알라룸푸르	전용차량	11:00 12:00 14:00	호텔 조식 후 공식 일정 - INTAN국가연수원 리더십센터 다문화주의 다민족 국가의 통합정책 사례 연구 <문화탐방> 노천온탕, 힌두사원 등 탐방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쿠알라룸푸르 풀만 호텔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식
제7일 09/03 (일)	쿠알라 홍콩 인천 광주	전용버스 CX5730 (코드쉐어) CX 418 전용버스	08:55 13:05 14:25 19:05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출국 수속 및 탑승 쿠알라룸푸르 출발 / 홍콩 향발 홍콩 도착후 연결편 이동후 탑승 홍콩 출발 / 인천 향발 인천 공항 도착 후 광주 이동 도 공무원교육원 도착 후 해산..	조:호텔식 중:기내식 석:휴게식

가 아시아인권위원회(AHRC)

□ 일반현황

- 주 소 : G/F., 52 Princess Margaret Road, Ho Man Tin, Kowloon, Hong Kong
- 홈페이지 : www.humanrights.asia
- 1986년 홍콩에 본부를 두고 출범한 민간기구로 80년대 아시아 지역 여러 곳에서 일어났던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 봉기와, 그 과정에서 군부 또는 독재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참혹한 인권침해를 지켜보던 몇몇 지역 활동가들이 ‘인권’에 대해 대중의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공동모임을 결성함.
- 1994년 현 위원장인 스리랑카 출신의 시민 활동가 바실 페르난도(Basil Fernando)가 사무국을 재정비하면서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인권 단체로 성장하게 됨. 현재 아시아 11개국에서 온 30명의 스태프들이 일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업적을 통해 단체의 위상 또한 높아져서 아시아의 UN이라고 인정받고 있음.

□ 현장학습 주요내용

- 1980년대에 군부독재국가, 개발도상국, 극심한 빈부격차, 열악한 인권 상황 등 ‘제3세계’의 특성을 가진 아시아 나라들의 전문가들을 불러 모은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각국의 인권 현황을 조사 비교하여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벌여 옴.
- 아시아인권위원회의 뜻을 높이 산 네덜란드와 독일의 교회 단체들에서 워크숍, 출판 등 사업별로 재정을 뒷받침해 주고 있어 관이나 국가의 기관이 아닌 순수시민단체(NGO)로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함

- 아시아 각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수집과 제공,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통한 재교육, 각종 출판물 발행 등이 최근의 주요 활동 내용이며, 워크숍 내용을 묶어내는 [보고서], 각종 정보를 담은 소식지인 [휴먼라이츠 솔리대리티(인권의 연대)], 사안별로 만들어지는 분석 리포트 단행본 등 다양한 출판물은 지역 활동가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고 있음. 특히 아시아 각 지역의 인권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하고 받아 볼 수 있는 뉴스레터 형식의 이메일은 인권 위가 별이는 활동의 핵심 부분이자 자랑거리라고 함.

□ 시사점

- 한국의 군부독재기간이었던 1980년대에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여 세계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으며 그 후 한국의 5·18재단 등과의 공조를 통해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친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아시아 지역의 11개국에서 모인 인권전문가들이 유럽 독지가들의 후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으며 아시아 여러 지역의 인권 문제 상황을 수집하여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음. 한국 출신 위원회 멤버(윤장현 현 광주광역시 시장이 이사직을 맡고 있었음)가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철수한 상태임. 비록 NGO단체이지만 영향력 있는 이 단체에 한국 전문가도 함께 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의 인권에 대한 인식도 성장했음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과 우리도 도움을 받았듯이 이제는 도움을 주는 국가로의 변화와 시민의식이 있어야 함을 깨달음.
- 민주화 투쟁을 통해 아시아의 대다수 국가가 민주화를 이루었으나 국가의 정치현안에 따른 인권 문제가 다시 야기되고 있다고 봄. 특히 최근 필리핀의 새 대통령의 마약사범 퇴치를 위해 많은 수의 범죄자 검거, 즉각적인 재판, 연이은 사형 집행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한국 내에서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즉, 혼인을 해서 한국에 들어와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외국인 출신 주부와 그 자녀들,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해 어려운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옹호 차원에서의 여러 제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고려인, 조선족 등과 같은 동족이 조국에 정착하려고 할 때의 인권차원에서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음



<바실 페르란도 위원장과 미팅>



< 아시아인권위원회 사무실 >

나 홍콩 평등기회위원회(EOC)

□ 일반현황

- 주소 : 9/F., CityPlaza Three, 14 Taikoo Wan Road, Taikoo Shing, Hong Kong.
- 홈페이지 : <http://www.eoc.org.hk>
- 홍콩 평등기회위원회(EOC : Equal Opportunity Commission)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인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모토를 가지고 설립되었으며 홍콩의 다민족,

다인종 국가로서의 평화적인 존립을 위해 1986년 홍콩법령에 의해 설립된 된 국가기관.

- 성 차별, 장애인 차별, 신분 차별, 인종 차별 등 4개의 차별에 대한 특별 조례를 제정하고 체계적인 법 적용과 정책관리를 위해 홍콩 정부가 설립했으며 홍콩정부 임명 공무원(임원들)과 주변 국가 출신 전문가들(실행업무)로 현재 조직인원 8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현재 위원장은 교수 출신인 찬충밍 주석이 맡고 있음.

□ 현장학습 주요내용

- 1996년 9월에 설립되어 20주년이 된 작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차별문제 조사를 통해 270,197건을 적발하였고, 13,352건의 차별에 대한 문제 신고를 받았으며, 신고된 사례를 분석하여 1,645건을 개선하였고, 5,185회의 중재를 위한 회의를 열었으며, 법률 적용을 통해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조정 합의를 통해 3,357건을 성공시켰음. 전체 조정 성공률 65%의 실적을 남김.
- 초기에는 편지와 전화로 차별 문제 해결 요청들을 접수 받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메일과 웹사이트 등을 통한 접수가 일반적이며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과 같은 SNS매체와 분기별로 8만부 이상 발행하는 저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별 금지, 평등 권리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한 불만, 문제 상황 등을 접수 받고 있음.
- 최근의 홍콩 평등기회위원회의 핫 이슈는 돈을 벌기 위해 홍콩에 가사도우미로 취업하는 홍콩 주변 국가의 여성들과 이들을 고용하는 홍콩 가정의 맞벌이 부부들 간의 갈등 분쟁 해결로 열악한 환경에서 홍콩의 가정에 가사도우미로 취직하여 가사 및 육아 등을 담당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 여성들과 보수에 합당한 업무 성과를 내기 바라며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고용주들 간의 갈등은 매우 첨예화 되어

있어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과 제도 장치들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함.

- 홍콩의 격심한 빈부의 격차, 부족한 일자리 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있음

□ 시사점

- 평등위원회에서 대외 홍보를 담당하며 이번 연수팀의 안내를 맡아준 Ms. Devi Novianti 박사도 인도네시아 출신 전문가인 것 같이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서 소속 국가의 자국민의 편의를 위해 각 나라 전문가를 정부 기관에서 채용하여 분쟁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나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었음.
- 법적인 조율 및 판결로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법적 자문 및 변호 업무를 평등기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가 직접 맡아 해결될 때까지 관여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도 모두 평등기회위원회에서 부담함으로써 소수 약자에 대한 확실한 배려 정책으로 인식 됨.



<평등기회위원회 기관 소개>



<Devi Novianti 박사>

다 쿠알라룸푸르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 일반현황

- 주소 : PETRONAS Twin Towers, Kuala Lumpur City Centre, Jalan Ampang, 50088 Kuala Lumpur, Malaysia
- 홈페이지 : www.petronastwintowers.com.my
- 소유주는 말레이시아의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와 쿠알라룸푸르 시티센터(KLCC)로, 타워 이름 역시 이 석유회사 이름에서 따 옴.
- 연면적 6만 5728평에 지하 6층, 지상 88층, 전체높이 452m로 구성된 이 쌍둥이 타워는 말레이시아의 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의 본사로, 두 타워 중 한 채 전체가 본사 건물임. 위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모양의 두 타워는 지상에서 170미터 높이에 있는 41층과 42층 사이에 난 58미터 길이의 '스카이트릿지'로 연결해 양쪽 건물의 흔들림이 없도록 했음.
- 88층부터는 4개 층이 하나의 층을 이루는 중층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4개 층까지 합하면 92층으로 볼 수 있음. 지상부터 6층까지는 쿠알라룸푸르 최대의 상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한쪽에 페트로나스 본사가 있음.

□ 현장학습 주요내용

- 아르헨티나 태생의 미국 건축가 세자르 펠리(1926년생)가 디자인한 이 타워는 외형은 언뜻 보면 금속으로 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콘크리트 건물로, 외벽만을 스테인리스강과 유리로 장식하고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음. 이슬람 미술에서 볼 수 있는 모티브를 기본으로 하였음.
- 1998년 완공 당시부터 2003년까지 아시아에서의 최고층 빌딩임과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음. 이 건물은 현재 세계에서 8위로 높은 타워이며, 쌍둥이 빌딩으로는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하고 있음.

- 이 건물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회사가 공동으로 지은 것이며 양측이 상대방보다 빨리 건설하기 위해 경쟁한 것으로 유명함. 일본의 하자마건설이 주축이 된 일본계 컨소시엄이 1번 타워 건설을 맡고 대한민국의 삼성건설과 극동건설, 말레이시아의 '자사테라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2번 타워를 건설하게 됨. 한국 컨소시엄은 일본에 비해 35일 늦게 착공하였지만 최종 완공은 오히려 6일을 앞서 끝을 내게 됨. 이런 성과의 뒤에는 한국 교포들의 협력이 있었다고 하며 시공사인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사도 한일간의 민족 정서와 감정을 잘 이용하여 의도적인 경쟁심을 일으켜 일의 진척을 향상 시켰다고 전해 짐. 경쟁에서 승리한 한국컨소시엄에게 중간 스카이 브릿지 공사권을 보상으로 주었다고 함.

□ 시사점

- 현대 건축의 역사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애쓰는 나라, 회사, 건축가의 열띤 경쟁으로 가득한데 이러한 경쟁은 무엇보다도 한 나라나 기업 또는 개인의 자긍심 성취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음.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페트로나스 타워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라는 타이틀을 잠시나마 가졌던 곳으로, 처음부터 이와 같은 타이틀을 목표로 삼았던 건축물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랜드마크로서 인지도를 높였던 쌍둥이 빌딩은 지역 상권뿐 아니라 한 나라의 관광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에 매력적인 건축물이 아닐 수 없다.
- 555m, 123층 한국의 롯데월드타워도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한국의 랜드마크가 되길 기대함.



<전망대에 있는 미니어처 >



<타워빌딩 내 백화점 >

라 푸트라자야 신행정수도 [국제컨벤션센터]

□ 일반현황

- 주 소 : Presint 5, 62000, Putrajaya, Wilayah Persekutuan, Putrajaya, MALAYSIA
- 홈페이지 : <http://www.picc.com.my/>
- 21세기형 도시를 추구하며 건설된 푸트라자야는 96년부터 수도 쿠알라룸푸르 남쪽 25km 지점에 위치한 1400만평 터에 인구 34만명 규모 첨단정보도시로 건설. 충남 연기·공주에 들어선 우리나라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2212만평)보다는 조금 작음.
- 마하티르 전 총리가 세운 21세기 국토구상 '비전 2020' 실현에 의해 행정부를 이끄는 총리청이 1999년에 이전하여 21세기 새해를 새 행정도시 푸트라자야(Putrajaya)에서 시작함.

□ 현장학습 주요내용

- 1999년 총리실을 시작으로 행정부서와 법원 경찰청 등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도심 한 가운데로 쭉 뻗은 중앙도로 양편엔 말레이시아 전통양식을 응용한 건물(관공서)들이 도열해 있는데, 똑 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을 만큼 개성이 넘침. 도시를 가로질러 조성된 거대 인공호수에는 유람선을 띄워 관광지인지, 휴양지, 테마파크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
- 도시 전체가 초고속 광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인텔리전트 도시로 각광을 받았으며, 첨단 기능과 독특한 외관이 조화를 이룬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미래형 최첨단 인공도시로 불리게 됨. 또한 행정도시지만 관광명소로도 손색이 없다고 자부한다는 시민들의 점점 늘고 있음.
- 도시를 물리적 성장의 유기체로만 보지 않고, 인간이 생활하는 장소이자, 자연도 같이 공존하는 도시의 21세기 도시계획 이념을 구현하여 도시 설계 때 몇 가지 후보를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정원도시'를 전체 개념으로 잡음. 공원 호수 습지 등을 포함한 녹지비율을 39%까지 끌어올려 마치 넓은 정원 위에 집을 앉히는 듯한 도시를 건설했으며 인공호수 120만평, 인공습지 60만평을 만들고 크고 작은 공원·식물원 등과 연결해 도시 내부에 대규모 녹지축을 형성함.
- 순가이 추아우강 하류에 댐을 막아 만든 도시 중앙부 호수는 수변 길이가 무려 38km나 달해 도시 녹지축의 근간을 이룸. 도시 공간배치는 호수 수면을 경계로 중심부 지역과 주거지역으로 크게 구분함. 도시 전체 개발 단위를 20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그 중 5개 구역은 중심부 지역(Core Area)에 두고 있다. 14개 구역은 주거지역에 배치하며 나머지 한 곳은 습지에 두고 있음.
- 도시 중앙부를 관통해 남서쪽으로는 4.2 km에 달하는 중앙도로가 배치돼 있음. 이 상징 가로축인 중앙도로를 중심으로 보행자도로와 크고 작은 공원이 종횡으로 연결됨. 남쪽으로 따라오면서 복합개발구

역, 시민문화구역, 상업구역,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등 나머지 네 구역이 차례로 배치됨.

- 정부구역을 포함한 중심부 5개 구역 안에선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방지를 위 해 승용차 통행을 제한, 대중교통 분담률을 70%까지 끌어 올림. 서부에 급행철도 터미널을 건설하고 여기에 경전철(LRT)과 지선 버스를 이용해 각 구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했으며, 북동쪽과 남서쪽 주요 축을 따라서는 경전철 노선이 두 방향으로 설치돼 중심 가로 축에서 서로 연결되고, 정부구역과 중앙도로 근처에서는 지하철로 운행. 경전철 노선이 '교통 정체 없는 21세기 대중교통도시'를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하도록 환승주차 시설과 연결시켜서 자가용 운전자는 도심 외곽에 주차하고 도심으로의 통행은 경전철을 주로 이용하도록 함.
- 말레이시아 버전의 실리콘 밸리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자야는 푸트라자야와 이웃하고 있는 도시로써 “Vision 2020” 추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세계 선도적 기업과 지식 노동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계적 수준의 생활, 근무환경을 갖춘 정보통신 기술의 허브로 육성됨. 이를 위해 25만 명의 인구를 목표로 도시를 건설하고 주거, 기업, 상업구역을 결합함. 산업, R&D센터, 관련대학 등을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운영본부를 갖춘 첨단정보도시로 성장하였음. 현재 IBM, INTEL, EDS 등 12개 이상의 세계적 명성의 첨단통신기업들과 300여 개의 다국적기업이 입지하고 약 1만 5천명의 지식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음.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된 이곳은 입주기업에게 100% 소유권을 인정하고, 10년간의 면세혜택을 제공하며, 멀티미디어 관련 기계수입은 관세도 면제함.

□ 시사점

- 건설의 기본컨셉인 정원도시, 정보도시는 환경친화적이면서도 현대 정보기술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 특히

복합행정도시인 세종시를 우리나라에서 건설하면서 하나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많은 사례를 제공해 줌으로써 도움이 되었던 도시라고 볼 수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국민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으며, 국회 토론 및 의결,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고, 내각에서 이전이 결정된 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 계획과 도시경관에 중점을 둔 나머지, 시민들에게는 다소간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아름다움과 기능적인 면을 같이 고려하여 건설되었으나, 일상생활(쇼핑, 외식, 자동차수리, 유흥 등)의 고려는 미흡하다는 평을 받고 있음



<인공호수와 총리공관>



<푸트라자야 국제컨벤션센터
홍보담당자와의 미팅>

□ 일반현황

- 주 소 : INTAN Main Campus Bukit Kiara, Jalan Bukit Kiara
50480 Kuala Lumpur, Malaysia
- 홈페이지 : <https://www.intanbk.intan.my>
- 동남아지역을 대표하는 공무원 연수기관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근교에 위치하고 있음. 5개의 분원을 가지고 있으며 리더십, 재정, 변화 혁신, 정책개발 등 8개의 분야별 전문교육부서를 두고 있음. 총리실 직속기관으로 설치되었으며 영국, 미국 등에서 공부한 전문가들이 채용되어 교수활동을 하고 있음

□ 현장학습 주요내용

- INTAN의 리더십 행정연수원부의 비전은 전문적이고, 윤리적이며, 사람 지향적인 월드클래스의 우수한 공무원 리더를 양성하는 공공 리더십 센터가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조직된 훈련, 세미나 및 강좌를 통해 공무원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리더십과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의 공공 부문에 대한 조직의 우수성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갖추고 있음.
- 공공 부문의 리더십을 강화, 시민과 이해 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들이 설계되어 있음.
- 주변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 등의 공무원과 연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도 오래전부터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리더십 행정교육부 미팅>



<시설 견학>

3 종합 시사점

가. 홍콩

- 지리적, 정치적 상황으로 좁은 면적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고 있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많이 발생하나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여 정리를 해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일자리를 찾아 온 주변국가(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여 공존하고자하는 여러 정책과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음
- 국가 경제는 여유가 있으나 국민은 가난한 사람이 많아 빈부의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국가의 복지 지원정책들을 통해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오래전부터 있었음

나. 말레이시아

- 유럽 강국들에 의한 식민통치 시대가 역사적으로 꽤 오랜 기간 유지되었지만 식민지시대가 끝나고 남겨진 여러 가지 장점들을 살려서 근대화, 현대화를 추진한 것이 주효했음
- 풍부한 천연자원(팜나무, 고무나무, 석유, 주석 등)을 기반으로 산업을 성장시켜 왔으며 민주적인 정치와 경제를 위해 국왕과 총리가 견제하며 국정을 이끌어 가고 있음
- 한 때 정치지도자들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푸트라자야, 사이버자야와 같은 새로운 종합행정도시 및 스마트도시를 건설한 저력이 앞으로의 국가 정치 및 경제에 큰 저력으로 작용할 것임

4

연수자 명단

교번	소 속	부 서	직 렬	직 급	성 명
1	전라남도	정보화담당관실	행정	6급	고이녀
2	전라남도	도민소통실	행정	9급	문화영
3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	연구사	양정고
4	전라남도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	6급	이현숙
5	목포시	총무과	행정	6급	강미선
6	여수시	총무과	행정	7급	이영강
7	나주시	주민생활지원과	보건	7급	김순
8	담양군	자치행정과	행정	6급	이강임
9	영암군	영암읍	사회복지	6급	진정님
10	무안군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행정	6급	김윤덕
11	함평군	기획감사실	행정	6급	안순영
12	영광군	총무과	행정	6급	조영석
13	진도군	지산면	행정	5급	차제남
14	신안군	기획홍보실	시설	7급	오문석
15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행정	5급	이정래